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심 성 경**

Sim, Sung Kyou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were 93 three-, four-, and five-year-old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the city of Chunju. The self-concept test, mother-child communication inventory for children and the mother-child communication questionnaire for mothers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General Linear Models analys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aired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1) the children perceived mother-child communication more intensively than mothers, (2) the more positive communication the children perceived they had with their mothers, the higher their self-concept, (3) the self-concept of 5-year-olds was more highly correlated with perception about mother-child communication than the self-concept of the younger children, and (4) boys' self-concept was more highly correlated with perceived mother-child communication than girl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0년대 중반 이후 교육자들과 상담 심리학자들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으로서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고려가 가치 있고 필요한 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Winne & Mark, 1977). 실제로 자아개념의 수준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났으며(Mussen, Conger, & Kagan, 1979, 재인용), 따라서 아동의 자아개념은 여러 아동 행동을 예언해 주는 변인으로서 국내에서도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습 동기, 학업성취,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과의 긍정적 상관을 밝힌 연구들이

* 본 연구는 1995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루어졌다(김성연, 1981; 엄혜원, 1987).

또한 Hendrick(1988)은 유아의 자아존중(self-esteem) 발달을 정신건강의 주요 측면으로 보고 그를 위한 교육적 노력을 강조하였는데, 자아존중은 자아개념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리고 생의 초기 단계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아의 구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그 환경이란 특히 중요한 사람(예컨대, 부모 형제, 친척)으로 구성된다(Ziegler & Hjelle, 1976, p. 459). 즉, 유아는 자신을 돌보는 부모와의 인간관계를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하므로(정원식, 1968) 어머니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Schaefer(1987)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 지각(perception of self)은 자신을 대하는 타인에 대한 지각으로 외면화되므로, 유아의 자아개념이 대인관계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사소통 체계 이론(communication systems theory)에 의하면 Satir(1972)가 논했듯이, 아동에게 있어 의사소통은 아동이 타인과 맺게 되는 관계의 유형과 아동의 주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단일요소이다(Cohen, 1987). 즉,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성과 대인관계를 발달시키는 매개체인데(Myers & Myers, 1973), 유아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 영역에 대한 연구와 훈련이 요구된다(Flavel, Speer, Green & August, 1981). 의사소통의 훈련에 있어서도 가정이 그 기본으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형태는 자녀의 정서발달과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연숙, 1990; 이정순, 1993). 어머니의 인식론적 관점에 따라 유아에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Monsey, Bond, Belenky, Weinstock & Burgmeier, 1991), 어

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개념 간의 밀접한 상관성이 밝혀지기도 하였다(김정희, 1988; 이경주, 1989).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거의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어머니-유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이고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부모-자녀간에는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가 존재하며(Austin, 1988),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어린이의 지각이 부모의 지각보다 어린이의 자아개념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연, 1981). 따라서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어머니의 응답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유아의 경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유아 자신의 인식을 함께 조사하고, 상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 일 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서 우선적으로 어머니-유아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의 인식을 조사하고, 상호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유아의 인식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어떤 관계를 갖으며, 누구의 인식이 자아개념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이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직업 유무 등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유아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유아의 건전한 자아개념 발달을 돕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 1)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의 인식은 어떠한가?
 - 1-1)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2) 어머니와 유아의 인식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유아의 자아개념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의 인식은 유아의 자아개념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Ⅱ. 선행 연구의 고찰

자아개념은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아-지각의 전체적 형태 또는 양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개인이 자신은 어떤 인간인가를 지각한 것인데 (Ziegler & Hjelle, 1976, p.485) 인간 성격의 중심요소로 간주된다.

선행연구 결과, 유아의 자아개념은 연령 증가에 정비례해서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 5세를 대상으로 한 김재봉(1986)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은 3세에서 4세까지 계속되다가 4세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리분(1982)에 의하면 유아의 자아개념이 연령증가(5, 6, 7, 8세)에 따라 점차 낮아 졌다. 그러나 정숙자(1984)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일관성 있는 결과는 아니며, 김호권(1979)에 의하면 초등학교 초기에 자아개념의 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로, 정숙자(1984)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아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아개념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Mead의 반영이론

(Reflection theory 또는 Mirror theory)의 관점에서 연구한 Skafte(1969)나 Corrign(1970)의 결과와 같다. 그러나 주리분(1982)에 의하면 신체적 자아에만 성차가 있었고, 김재봉(1986)에 의하면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유아를 대상으로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자아개념의 연령별, 성별 차이는 불확실하며, 청소년기에는 남아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심영현, 1981; 이경주, 1989).

대부분의 아동에게 있어서 가정은 정서와 사회적 관계의 초기 학습의 중요한 근원으로 (Achenbach, 1982),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 변인과는 밀접한 상관이 있다(주리분, 1982; 정숙자, 1984). 즉, 부모의 학력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부분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고(김재봉, 1986; 주리분, 1982), 사회계층이 높을 때 자아개념이 긍정적임이 밝혀졌다(정숙자, 1984; 김영애, 1981). Sidney(1977)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다소 영향을 주나 일관성이 없다고 하였는데, 국내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취업 자체는 자녀의 자아개념과 특별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선, 1985). 또한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환경 변인과 자아개념 간의 상관이 더 높았으며(김재봉, 1986; 정숙자, 1984), 가정의 지위환경(status environment)보다 과정환경(process environment) 변인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더 큰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리분, 1982). 가정환경의 과정변인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있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밝혀졌으나(주리분, 1982; 정숙자, 1984), 김재봉(1986)의 연구에 의하면 차이가 없었다. 또한 Schaefer 등(1987)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부모나 교사같은 주변의 성인에 대해 갖는 조직화된 지각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지각으로 내면화되므로, 유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지각은 자아개념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대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Monsey 등(199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지적 수준이 낮을 때 유아에게 위압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며 지적 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유의미한 인지적 요구를 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김정희(1988)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일방통행 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항문, 198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의 차이도 보고되었다(현주, 1979; 김정희, 1988). 이경주(1989)의 연구에서는 젊고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남아 보다 여아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Stearn(1971)과 Lillibrige(1971) 등의 연구에서는 P. E. T. 같은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부모 자신과 자녀의 지각에 의해 조사하였는데, 부모와 자녀의 인식 모두에서 부모의 민주적 태도와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뿐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증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도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꽤 이루어졌으나 어머니-유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더구나 두 가지 변인간의 상관울 다룬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단,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개념 간에 밀접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형태가 쌍방향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1987; 이경주, 1989). 따라서 가정환경,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의

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유아기에 있어 어머니-유아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분석해 보는 일은 당연히 시도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사립 유치원 원아와 그들의 어머니였다. 유치원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중류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유아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96쌍의 유아와 어머니를 임의 표집하였으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시키고 최종 93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 유아-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배경변인	구 분	빈도(%)
유아의 연령*	3 세	29(31.2)
	4 세	32(34.4)
	5 세	32(34.4)
유아의 성별	남	44(47.3)
	여	49(52.7)
어머니의 연령	33세 이전	48(51.6)
	34세 이후	45(48.4)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	27(29.0)
	대졸 이상	66(71.0)
어머니의 취업	유	45(48.4)
	무	48(51.6)

* 유아의 연령은 9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유아 의사소통 척도

이정순(199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 유아의 연령에 맞게 문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응답 방법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4단계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중 하나에 응답하는데, 유아용의 경우 문항을 읽어준 후 유아가 4개 도형 중 하나를 가리켜 답하도록 되어있다.(○, o, x, X)

어머니용, 유아용 척도는 동일한 내용의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주어, 목적어 만 상대적으로 바꾸어 진술하였다. 하위 영역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표 2>와 같으며, 응답 결과를 1점~4점으로 배점하게 되어있다.

<표 2> 어머니-유아 의사소통 척도 신뢰도

대 상	의사소통 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α
어머니용	긍정적 의사소통	1~10	10개	.79
	부정적 의사소통	11~15	5개	.64
유아용	긍정적 의사소통	1~10	10개	.73
	부정적 의사소통	11~15	5개	.56

2) 유아용 자아개념 검사

주리분(1982)이 행동과학연구소(1972)와 정원식(1965)의 자아개념 검사를 기초로 수정, 고안하고 김수향(1991)이 다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 본 연구에 3세 유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자료를 다시 제작하였다. 이 검사는 ‘능력’ ‘신체’ ‘가정’ ‘사회’적 자아의 4개 하위요인 별로 7개씩 총 2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 Likert 식 척도로 4개 도형 중 하나를 가리켜 답하게 하며(의사소통 척도와 동일), 2개의 연습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 결과는 1점~4점으로 배점하되, 신체적 자아의 14문항과 사회적 자아의 25, 26, 27문항은 역으로 배점토록 되어있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와 방법의 확정과 보조자 훈련을 위하여 1995년 4월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1995년 5월 15일~29일 사이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의 보조자로는 유치원 교사 경력을 가진 4년제 대학 출신자 3명이 참여하였다.

유치원의 오전과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였으며 별도의 방에서 유아를 개별적으로 면담하였다. 첫 일주일간은 의사소통 척도를, 그리고 다음 일주일간은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 유아의 배정은 무작위로 하였다. 한 유아당 의사소통 척도는 10분, 자아개념 검사는 15분~20분 가량 소요되었다. 한편, 본 조사 첫날 어머니용 의사소통 질문지를 유아 편에 어머니에게 배부하였으며, 그 후 5일~10일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척도와 자아개념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뒤 집단간 차이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T-test, GLM(General Linear Model)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T-test

를 실시하였고, 의사소통 점수와 자아개념 점수간의 관계를 분석키 위해 Pearson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의사소통 척도의 문항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고찰하였다.

IV. 연구 결과

1-1.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의 인식

1) 유아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유아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에 대해 배경 변인 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유아 연령, 어머니의 연령 및 직업 별 어머니의 의사소통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및 F-검증

구분	통계치	긍정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		
		M	SD	F	M	SD	F
유아 3세		3.16	0.17		3.06	0.13	
연령 4세		3.22	0.22	5.74**	3.16	0.20	2.95
	5세	3.36	0.29		3.16	0.23	
모~33세 유		3.30	0.25		3.16	0.22	
연령 무		3.14	0.20	3.18	3.01	0.04	4.77*
	x 34세~유	3.26	0.23		3.14	0.20	
직업 무		3.27	0.29		3.17	0.22	
계		3.25	0.25		3.12	0.20	

* $p < .05$ ** $p < .01$

전체적으로 어머니는 유아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긍정적 의사소통이 부정적 의사소통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별 차이를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긍정적 의사소통의 정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Duncan test 결과에

의하면 3세와 4세에 비해 5세 유아의 어머니가 유아와 더 많이 긍정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및 직업 유무에 따라 부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높은 연령의 비취업모가 유아와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고, 반면에 연령이 낮은 비취업모는 가장 적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유아의 인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유아의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 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학력별 유아의 의사소통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및 T-검증

구분	통계치	긍정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		
		M	SD	T	M	SD	T
모 ~고졸		3.66	0.22		3.62	0.25	
학력 대졸~		3.74	0.24	0.42	3.75	0.24	4.38*
	계	3.72	0.24		3.71	0.25	

* $p < .05$

전체적으로 유아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긍정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이 비슷한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별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부정적 의사소통의 정도에 대한 유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유아가 고졸 이하 어머니의 유아에 비해 어머니와 부정적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2.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간의 인식 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유아 쌍의 응답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았다.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의 인식에

<표 5>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평균점수와 Paired-T-test 결과

	긍정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			
	어머니	유아	인식차(M)	T	어머니	유아	인식차(M)	T
3 세	3.16	3.71	-0.55	-11.30***	3.06	3.72	-0.67	-13.40***
4 세	3.22	3.72	-0.49	-8.61***	3.16	3.71	-0.55	-8.58***
5 세	3.36	3.73	-0.37	-5.49***	3.16	3.70	-0.54	-8.63***
남	3.25	3.69	-0.44	-8.16***	3.15	3.70	-0.56	-01.62***
여	3.25	3.74	-0.49	-11.13***	3.11	3.71	-0.61	-13.14***
계	3.25	3.72	-0.47	-13.60***	3.12	3.71	-0.59	-16.83***

*** $p < .001$

전체적으로 유아가 어머니에 비해 상호 의사소통의 정도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의사소통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긍정적 의사소통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다 점수 차이가 더 커서, 유아가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부정적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이 높을 때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감소됨을 나타냈다. 즉, 연령이 낮은 유아가 높은 연령 유아에 비해 어머니와 더 큰 인식의 차이를 보여, 어머니에 비해 보다 더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어머니의 인식과 더 큰 차이를 보여서,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2. 유아의 자아개념

유아의 자아개념 점수에 대해 배경변인 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표 6-1> 유아, 어머니의 연령별 자아개념 평균과 표준편차 및 F-검증/T-검증

구분	통계치		사회적 자아개념		총 자아개념	
	M	SD	M	SD	M	SD
유아연령 3세	22.59	2.96	99.38	6.65		
4세	23.38	2.69	99.91	5.89		
5세	24.66	2.56	102.78	5.99		
F 값	4.12*		2.98			
어머니 33세 이하	23.17	3.01	99.96	6.54		
연령 34세 이상	24.00	2.60	101.56	5.96		
T 값	4.31*		2.20			

* $p < .05$

먼저, <표 6-1>을 보면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3, 4, 5세의 순서로 연령이 높을

수록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자아개념도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6-2>를 보면,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가정적 자아개념과 총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3세 남아의 가정적 자아개념이 가장 높은 반면 3세 여아가 가장 낮았으며, 4, 5세의 경우 여아의 가정적 자아개념이 남아보다 더 높았다. 총 자아개념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서, 결국 여아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적 자아와 총 자아개념이 높는데 비해 남아는 3세가 가장 높고 4세가 가장 낮았다. 즉 남아의 경우 4세의 자아개념이 급격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나 5세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연령 증가에 따라 높은 자아개념을 나타냈다. 또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양상은 능력, 신체, 사회적 자아 등 그 밖의 자아개념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6-2> 유아의 연령x성별 자아개념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및 F-검증

구분	통계치 가정적 자아개념		총 자아개념		
	M	SD	M	SD	
3세	남	22.27	0.90	103.00	5.74
	여	25.61	1.94	97.17	6.31
4세	남	25.64	1.60	98.21	5.28
	여	26.72	1.74	101.22	6.12
5세	남	26.05	1.78	101.53	6.16
	여	26.92	1.32	104.62	5.44
F 값		6.14**		5.35**	

** $p < .01$

3.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인식과 유아의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유아의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유아 각각의 의사소통 평정점수와 유아의 자아개념 점수의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7>과 같았다.

<표 7> 어머니-유아 의사소통 점수와 유아의 자아개념 점수간의 상관계수

	어머니 (긍정)	어머니 (부정)	유아 (긍정)	유아 (긍정)
능력	0.22*	0.14	0.62***	0.47***
신체	0.17	0.06	0.44***	0.33**
가정	0.21*	0.13	0.59***	0.43***
사회	0.26*	0.12	0.33**	0.31**
총자아	0.28**	0.11	0.59***	0.47***

* $p < .05$ ** $p < .01$ *** $p < .001$

전체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유아의 인식이 어머니의 인식보다 유아의 자아개념과 보다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의 정도는 유아의 능력, 가정, 사회, 총 자아개념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상관의 정도가 낮았다. 또한 유아와의 부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도는 유아의 자아개념점수와 거의 상관이 없었다. 이에 비해 유아가 인식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정도는 유아의 자아개념 전 영역에 걸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상관의 정도가 더 컸는데, 특히 어머니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유아의 능력, 가정적 자아, 총 자아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가 인식한

어머니와의 부정적 의사소통의 정도는 긍정적 의사소통의 정도에 비해 유아의 자아개념과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아의 의사소통 점수와 유아의 총 자아개념 점수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표 8> 연령·성별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 점수와 총자아점수와의 상관관계

		유아(긍정적 의사소통)	유아(부정적 의사소통)
연령	3세	0.52**	0.41*
	4세	0.55***	0.39*
	5세	0.73***	0.68***
성별	남	0.64***	0.58***
	여	0.56***	0.38**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성별에 따른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남아와 유아의 경우 모두 긍정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총 자아개념 점수간에 유사하게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정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총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아가 높은 상관을 나타낸 데 비해 여아는 낮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5세의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총 자아개념 간에 가장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세 유아가 3, 4세 유아에 비해 어머니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정도와 총 자아개념 간에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정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총 자아개념 간의 상관 역시 5세 유아의 경우에 가장 높았고, 3, 4세의 경우에는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높을 때 유아가 인식한 어머니

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유아의 자아개념 간에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 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1) 어머니의 인식에 의하면 어머니-유아의 의사소통의 정도는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및 취업 등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아의 연령이 높을 때 어머니는 긍정적 의사소통이 많다고 인식하였으며, 연령이 높은 비취업모가 유아와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가장 많다고 한 반면 연령이 낮은 취업모는 가장 적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유아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한항문(1981)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어머니의 취업 자체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기 보다 어머니의 연령과 상호작용 효과를 갖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인식에 의하면 어머니-유아 의사소통의 정도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서, 대졸 이상 어머니의 유아가 고졸 이하 어머니의 유아에 비해 어머니와 부정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대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 기대나 어머니의 지적수준이 낮을 때 위압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한다는 Monsey 등(1991)의 연구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화가 일방통행 식이라는 김정희(1988)의 결과와는 일치한다. 그런데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때 긍정적 의사소통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학력이 높은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의 양 자체가 더 많은 것으로 보

여진다. 그밖에 어머니의 취업(한항문, 1981)이나, 자녀의 성별(현주, 1979; 김정희, 1988)에 따른 차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의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인식에서는 어머니-유아 의사소통에 있어 어머니의 연령 및 취업의 상호작용 효과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면, 종래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인식을 통해 분석되었던 것과는 달리 유아의 인식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이나 자녀의 성별 등은 어머니-유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와 유아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에 비해 유아가 더 의사소통의 정도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정적 의사소통의 정도에 대해 더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부모-자녀간에 의사소통에 대한 해석의 양적, 질적 불일치(Austin, 1988)를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은 부모의 인식과 다르며, 부모 자신에 비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나, 더 엄격하고 맹종을 요구한다고 인식한다는 김성연(1981)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결국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아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정도를 강하게 받아들이며 부정적 의사소통에 대해 더욱 강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세 유아가 4, 5세 유아에 비해 그리고 아들보다는 딸이 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정도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와의 의사소통 시 특히 부정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

에 따른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2) 유아의 자아개념은 유아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때와 유아의 연령이 높을 때 유아의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여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았으나 남아는 3세가 가장 높고 4세는 급격히 낮았다가 5세에 다시 높아져서 유아의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4세를 기점으로 자아개념이 낮아진다는 김재봉(1986), 주리분(1981)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남아의 경우 4세의 자아개념이 급격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5세 남아의 자아개념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 자체에 따른 차이는 확실치 않으나 연령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유아의 경우 자아개념의 성차는 불확실하며 청소년기에는 남아의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주리분, 1981; 이경주, 1989), 본 연구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여아의 자아개념이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김호권(1979)에 의하면 국민학교 초기에 자아개념의 격차가 현격해진다고 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연결해서 본다면 국민학교 입학 직후의 어느 시점에서 자아개념의 성차도 변화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이는 자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전하며 새로운 상황과 갈등에 따라 계속 변화, 조정된다는 Mead(1934)의 반영이론에 일치되는 관점이며, 과연 어떤 연령,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김재봉(1986), 주리분(1981)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유아의 자아개념에 있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

견되지 않았다.

3) 어머니-유아 의사소통은 유아의 자아개념과 상관이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에 대한 유아의 인식이 어머니의 인식에 비해 자아개념과 보다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졌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유아의 인식이 부모 자신의 인식 보다 유아의 자아개념과 더 밀접한 상관을 보였던 김성연(1981)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아가 어머니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많다고 인식할 때 유아의 자아개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유아의 자아개념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김정희(1987), 이경주(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성인에 대한 조직화된 지각이 아동의 긍정적, 부정적 자아 지각으로 내면화된다는 Schaefer 등(198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유아의 연령이 높을 때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유아의 자아개념은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정숙자(1984), 김재봉(1987)의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아개념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상관이 높았던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결과이다. 또한 남아인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간에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성차는 주리분(1982)과 정숙자(1984)가 성별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 변인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것과 일치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연결 지어서 본다면 가정환경 변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연령이 어릴 수록 크지만, 연령이 4, 5세로 높아지면서 어머니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에 의해 유아의 자아개념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은 밀접한 상관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뿐 아니라 유아의 인식을 함께 조사, 분석하였던 바 유아가 어머니보다 더 의사소통의 정도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인식보다 유아 자신의 인식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더 큰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즉, 유아가 인식하기에 어머니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충분할 때 유아의 자아개념이 높았다. 따라서 유아의 건전한 자아개념의 발달을 위해 유아의 관점을 중심으로한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특히 어머니-유아 의사소통에 대한 유아 자신의 인식에 초점을 둔 실증적 연구와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아의 자아개념에 있어 연령이나 성별 자체에 따른 차이는 확실치 않고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경향은 4세를 기점으로 자아개념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논제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용 의사소통 척도의 문항 신뢰도가 낮고 표집의 수가 충분치 못한 등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앞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측정 도구의 개발이나 광범위한 표집에 의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의 발달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을 위해서도 P. E. 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돕는 구체적인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이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보다 일반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유아의 연령, 성별 등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유아 의사소통의 차이를 고려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호권의 3인(1979).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유
사증단적 연구. 행동과학연구소, 통권 112
호.
- 김성연(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
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애(1981). 아동의 자아개념과 사회계층간의
상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 청구논문.
- 김정희(1988).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봉(1986). 3, 4, 5세 유아의 자아개념 발달
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박정선(1985). 모의 직업 및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엄혜원(1987). 유아의 자아개념과 문제해결의 관
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
구논문.
- 이경주(1989).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간의 커뮤니
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숙(1990).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
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
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순(1993).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
통과 아동 우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숙자(1984).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청구논문.
- 주리분(1982).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변인
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
문.
- 정원식(1968). 자아개념 검사 검사법 요강. 서
울:코리안 테스트 센터.
- 현주(1979). 어머니의 대화 형태와 아동의 역할
수행간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한항문(1981).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
적 및 인성특성과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ustin, E. W. (1988). *Developmental Dif-
ferences in Parent-Child Interpretations
for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Implications for Mass Com-
munication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
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71st, Portland,
OR, July 2-5).
- Achenbach, T. M. (1982). *Developmental
psychology*(2nd. Ed.). N. Y.: John
Wiley & Sons, Inc.
- Cohen, S. & Rae, G. (1987). *Growing up
with children: An introduction to
work with young childre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Corrigan, F. V. (1970). *A Comparison of
Self-concept of American Indian
Student from Public or Federal
School Background*. Unpublished doc-
toral dissertation, George Washing-
ton University.
- Flanel, J. H., Speer, J. R., Green, F. L., &
August, D. L. (1981). The Develop-

- ment of Comprehension Monitoring and Monitoring and Communic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5, Serial No. 192).
- Hendrick, J. (1988). *The whole child*(4th ed.). Columbus, Ohio:Merrill Publishing Company.
- Lillibrige, M. (1971). *The relationship of a P. E. T. program to change in parent's self-assessed attitudes and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Monsey, T. V. C., Bond, L. A., Belenky, M. F., Weinstock, J. S., & Burgmeier, P. T.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and their Communication Strategies With Their Young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Seattle, WA, April 18-20).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Harper International Edition.
- Myers, G. E., & Myers, M. T. (1973).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Mcgraw-Hill, Inc.
-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aefer, E. S., Clair, K. L. St., & Sayer, S. L. (1987). *Child Self-Reports and Perceptions of Parent and Teacher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Baltimore, MD, April 23-26).
- Sidney, A. M. (1977).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 Y.:McGraw-Hill Company.
- Skaft, P. (1969). *Conflict and tacit agre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Florida.
- Stearn, M. (1971). *The relationship of parent behavior and child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Winne, P. H., & Mark, R. W. (1977).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of Three Self-Concept Inventories. *Child Development*, 48, pp. 893-901.
- Zigler, D. J. & Hjelle, L. A. (1983). 성격 심리학. 이훈구 역. 서울:법문사.